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비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스님

## 길을 묻는 이에게

제 669호 현대불교  
2008년 3월 5일(음력 1월 28일) 수요일 / 불기 2552년  
법공양 페이지

25

# 뽀족하게 사시지 말고 좀 너그럽게 사세요!

여러분과 같이 더우나 추우나 사계절을 막론하고 법당이 좁으나 넓으나 그저 부처님의 뜻과 우리들의 한마음이 함께 도반이 돼서 이렇게 공부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하고 토론 질문을 하도록 하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세계가 시끄럽고 복잡다단하죠. 복잡하면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면 사람을 하기 때문에 인연이 되고 인연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다단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인연도 될 수 없거니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아수라장같이 그런가 하면 또 선지식들이 계시고 일체제불의 뜻이 있고, 이 모두가 진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달린 겁니다. 우리가 용이 있고 의욕이 있게 이렇게 살을 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대로 될 것이며, 또 용기가 없고 이런 세상 살면 될 하나 없다고 그렇게 찌부러들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자비하신 부처님은 자기가 일생 동안 걸은 그 자체를 내막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갖은 수단을 다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인연이라는 것을, 돌 아나게 일대사로 자비의 인연으로 다 흡수하신 거죠. 그것은 우리 지구뿐 아니라 우주의 전체를, 과거나 미래나 현재를 전체 다 흡수하셨습니까. 흡수하셔서 그렇게 그것을 여러 제자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뼈 한 무더기라도 가르치셨습니까. 그것은 수억겁 광년을 거치면서 이렇게 진화되고 형성되어서 진리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을 그 뼈 한 무더기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시다가 뼈 한 무더기를 놓고 짚을 하시니까 "사생자부어신 어버이신데 어찌 뼈 무더기에도 짚을 하십니까?" 했더라고요. 생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이까, "수없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고 형제가 되고 그런데, 저 뼈가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아버지도 될 수도 있고 할아버지도 될 수 있는데 어찌 그냥 갈 수 있겠느냐?" 하시더라고요.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생략해서 미생물부터라고 합니다.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되면서 형성되고 형성되면서 진화되고 반복하면서 차원을 높이 갖게 된 이 진리가 어떠했겠습니까? 또 사람이 살다보면 의견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무엇을 해도 홀로 썼다가 도끼로 썼다가, 응? 이렇게 진화가 되고 진화를 시켜서 움직여주고 그렇게 해오면서 나고 죽고 나고 죽고 그렇게 나투며 오늘에 이르렀겠죠. 그러는 과정에서 미생물은 부모가 없었겠습니까? 자식이 없었겠습니까? 지금 다 아시죠? 밝은 세상입니까, 너무도 잘 아실 겁니다. 모습은 다들지언정 어찌 생명과 마음이야 돌이겠습니까?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과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다 우리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일체 생명들이 다 그렇게 진화되면서 형성되어서 이 사람까지, 맨 나중에 사람까지 됐던 겁니다. 사람으로 돼서 보니까 부처님께서 가만히 그 일대사에 돌 아난 인연을 다 흡수하시고 말입니다. 보니까 전부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더라고요. 그러니 내 생명 아닌 게 없고 내 도량 아닌 게 없고 내 모습 아닌 게 없더라고요. 그러신 겁니다. 그러니 어찌 나뭇이 없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도 사시면서 뽀족하게 살면 몸과 가정이 다 해로우니까 좀 너그럽게 사십시오. 등글게, 아질게, 착하게, 지혜롭게, 이렇게 물리가 터져야 우리가 삶의 보람을 가지고 내 몸도 건지며 내 가정도 건지며 또 상대방도 건질 수 있다고 소립니다.

그렇게 거쳐 오면서 우리가 뭐는 안 봐왔습니까? 이 부처님께서 그렇게 때문에 자기 마음, 한 마음으로 하여금 보살들의 이름을 다 지는 것입니까. 용도에 따라서 말입니다. 아프면 의사요, 관세음, 지장, 칠성, 주해신, 주산신, 이 모든 이름들이 다 자기 한마음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래 자기 한 마음에서 탄생시킨 거죠. 그러니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이 세상을 다 주고 바꾸려 해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합니다. 그렇게 보살들을 이심전심으로서 낳게 해서 그 용도에 따라서 달라는 사람마다 응신이 돼서 응해주셨다 이겁니다. 지금까지도 말입니다. 과거도 그랬지만 미래에도 그럴 것이고 현재에도 그럴 것입니다. 바로 미래가 현재로 돌아오는 거니까요. 영원한 오늘이죠. 그 많은 보살들을 자기 마음의 이름으로 탄생을 시키시고 그렇게 모든 중생들을 다스리면서 안의 중생들을 또 다스려야 조복을 받느니라. 내면 속의 이 생명들은 수없이 살아나온 과정을 가지고 있는 인연들입니다. 인연들이 바로 합세한 것입니다.

그 수없는 과정을 거치면서 인연들이 된 이 몸뚱이 속의 생명들은 살아오면서 모든 것이 머리를 짚어 보시며 이 정수의 자동적인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현실로 나오는 것입니다. 고등동물의 인간이라 그렇게 아주 묘하고 광대무변한 것

이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거지처럼 빌며 기도하는 그런 습에 매달려서 살고 있습니다. 각자가 당당하질 못하고, 어차피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마찬가지로 죽는 것을 겁내고 사는 것을 몇만 년 몇천 년 살 양으로 애쓰는 그 바둥거리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거죠. 내 한 몸 공했다는 결론 모든 겁 알게 되면, 고정됨이 없어 잘나 잘나 나투면서 화해서 돌아간다 이거를 알면 내가 한 일도 없을 것인데 말이죠. 나 자체가 한 일이 없으니까 나 자체도 없구나. 잘나잘나 돌아갈 뿐이구나. 이거를 안다면 그냥, 공한데다가 공한 물질을 그냥 내버리면 그렇게 바둥거리지 않아도 세상 살맛이 날 텐데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머무르면서 살맛이 날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달 박달 사는 겁니다. 지금 자식이 병신이 돼서 있다가 자식이 죽게 됐거나 이러면 더 안달박달 한단 말입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말입니다. 냉정하게 따진다면 앞서 죽고 뒤에 죽는 것밖에 없죠.

김대성이기 시주를 하는데, 머슴을 살아서 새겨 받은 걸로 논바닥 한 서너 마지기 사놓은 걸 그거를 스님한테 다 시주를 했던 말입니다. 시주를 하니깐 그 스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니까, 그때는

양반 상놈으로서 살던 시절이 됐기 때문에 도무지 그 종 문서에서 벗어나게 할 수도 없고, 벗어나게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매여서 살고 있으니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주한 지 삼일 만에 죽었습니다. 만약에 잘 지으라고 시주를 몽땅 갖다가 다 했는데 사를 만에 죽었다면 어떻게들 생각하실 겁니까? 이 스님네들을 잡아먹으려고 할지도 모르죠. 하하하. 아닙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세상에 재산을 톡 털어서 갖다가 스님한테 드렸는데 어찌 사를 만에 죽었느냐는 얘깁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그 어리석은 중생들한테는 묵언으로, 말씀을 못하시면서 힘이 없어 하신 겁니다. 말을 못한 게 아니라 못하시는 거지. 하하하. 그 소릴 듣고서 우왕좌왕 할까봐 그대로 묵언으로 그냥 평등공평으로 그냥 실행을 하신 거죠. 그래 죽었는데, 그 어머니가 하신 말씀입니다. "아하, 이 죄 많은 여인에게 태어나서 이 고생을 했는데 네가 시주를 하니가 부처님께서 좋은 데로, 좋은 양반의 집으로 태어나게 하려고 이렇게 몸을 벗게 했구나." 하고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모르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렇게 재가 생각이 나십니까? 그래서 김대성이는 사를 되던 날 죽고 정승의 집으로 탄생을 했다합니다. 탄생을 했을 때 어린애가 울고 또 그렇게 한 과정을 생각하고요. 그 낭으신 어머니와 과거 어머니 양쪽을 다 섬기셨던데 말입니다. 모셨단 말입니다. 그러한 그 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아이구, 그렇게 관하고 그렇게 정성을 들였는데도 왜 우리 안 돼?' 이렇게 비관적인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 비관적인 생각이 그렇게 들었으니까 말도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생각이 곱게 나왔으면 말도 곱게 나오니까.

그러니깐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몸 안에 들은 중생을 부처님께선 비유를 하시길 몸은 배로, 물에 띄운 배로 치시고 그 몸 안에 들은 생명은 중생으로 치고 우리 불성은 바로 선장조로 찻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 타고 가는 겁니다. 이 생명들은 이 속의 중생들은 배를 타고 온갖 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장이 그 중생들도 건지고 배도 성하게 갈 때까지 가게끔 이끌어야 할 텐데 선장과 같이 한마음이 되질 않아요. 모두 어떠한 일이 생겨도 선장한테 모든 것을 맡겨놓고 '너만이 할 수 있다. 너만이 낚게 할 수 있다. 너만이 이끌 수 있다. 너만이 화복하게 할 수 있다. 너만이 사회의 모든 것을 이끌어줄 수 있고, 진행할 수 있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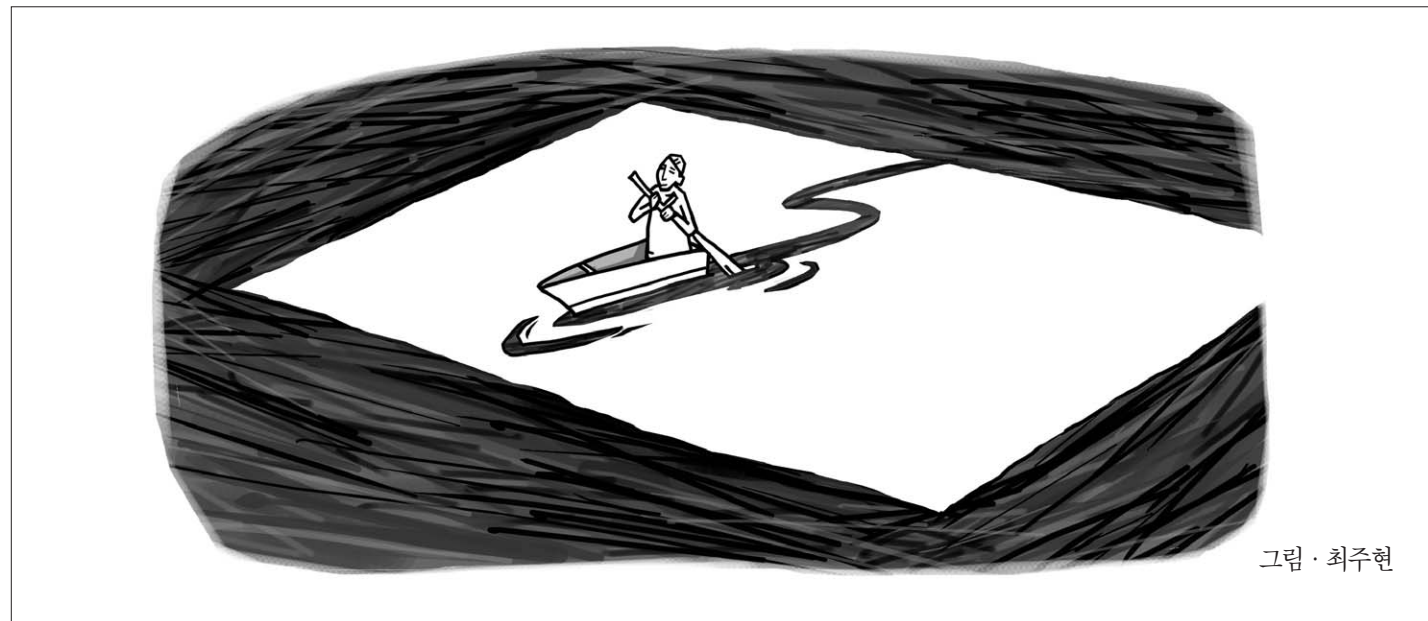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그냥 하늘이 깨져서 가루가 되어 금방 내려와서 우리가 다 죽는다 하더라도 좀더 능글하게 지혜롭게 여유 있게 딱 버티고 한번 쓱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라!

26면으로 계속

## 2008학년도 구룡사 불교전통의식교육원 신입생모집안내

본 의식원은 불교전통의식을 기초에서부터 시작하여 상주권공과정까지 여법하게 봉행 할 수 있도록 체계 있게 교육하는 범음법패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한국불교 전통의식인 범음법패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사찰에서 행하는 각종의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배우실 기회가 없으셨던 분들의 많은 관심과 입학을 바랍니다.

### ..... 입학 안내 .....

- 모집학과 : 범음법패과정
- 입학자격 : 종단 및 승속에 관계없이 배우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누구나 가능
- 교육기간 : 2년 과정
- 접수처 : 한국불교태고종 구룡사(대구광역시 동구 신무동 235-5) 053)982-1417 /팩스 053)982-1417
- 제출서류 : 입학원서, 수강신청서(본교 소정양식), 반영합판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부
- 접수기간 : **신입생 3월 4일까지**(청강생 수시접수)
- 강 주 : 상진스님(보우승가대학 법패과 교수, 전 대구중무원 범음법패연구원 강주)
- 강 사 : 자운스님, 혜성스님, 일모스님(대구중무원 범음법패연구원 연구과정 졸업)
- 입학식 및 개강일시 : 2008년 3월 4일 화요일 오후 2시  
【오전 0시부터 졸업시연회 봉행 뜻있는 분 동참바람】
- 강의시간 : 월, 화요일 오후 2시 ~ 6시까지

### ..... 강의 내용 .....

학년	학기	1학기	2학기
1학년	기초 과정	기초 : 목탁치는법, 천수경, 도량경, 종성 예불 : 향수해례, 사성제, 칠정례(오분향례)각단예불 불공 : 삼보통정(사시마지), 퇴공, 각단불공의식 시식 : 관음시식, 상송영만, 화엄시식, 구명시식, 외 기타 : 장의편, 방생의식, 각종행사의식 등...	상주권공 과정(범음법패) 할향, 등계, 함장계, 고향계, 개계, 세수계 복청계(천수다라니)도량계, 참회계, 천수바라, 도량계, 요점바라, 등 (바라, 작법기본 과정)
	2학년	천도 의식 본과정(제계, 안채비, 사물다루는과정) 시연, 대령, 관육, 신중작법, 상단불공(지장청의) 중단퇴공, 관음시식, 봉송회향, 공덕계 ※ 다계작법, 요점바라, 관육바라, 회의재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육언이, 운심계, 가지계	2년 과정 총괄 졸업시연회준비 1.실전행사에 대비한 유기적인 의식진행 (범주, 바라지, 목탁, 태정, 북, 요령) 2.작법고급과정(사방유신, 기경이, 향화계, 범고무, 음남) 3.모든 사물과 작법을 총괄정리 ◇특강 : 절안의식, 생전생철 예수제 등에 관한 의식준비와 설명

한국불교태고종 구룡사 불교대학 학장 원봉